

백색 토종오리 개발 연구 본격화

농진청, 국내 유전자원
시장 확대 위해 추진
백색 깃털색 개체 선발
교배 지속 방법으로
순종 토종오리 집단 조성



백색 토종오리 기초집단의 모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 유전자원인 토종오리의 시장 확대를 위해 토종오리 신계통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약 2.2kg이며, 2019년 농업생산액 중 오리는 1조 2,526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육용오리 사육 규모는 약 810만 마리에 이르며, 이 중 토종오리의 비율은 2%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내 육용오리 생산에 쓰이는 종오리(씨오리)는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존 깃털이 흑갈색인 유색 계통의 토종오리 이외에 백색 깃털의 토종오리 계통도 새롭게 조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유색 토종오리는 맛과 영양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도축 후 고기표면에 갈색 잔털이 남아 있어 일반 오리고기보다 외관상 선호도가 낮았다.

농가에서도 백색 토종오리 종자 공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그동안 토종 종오리를 보급했던 사육 농가 현장에서 1~2% 수준으로 발생하는

백색 토종오리 자원을 수집해 새로운 계통 조성을 위한 기초집단으로 구축했다.

깃털색이 백색인 토종오리 개체를 선발해 교배를 지속하는 방법으로 순종 백색 토종오리 집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률과 육질이 산업적 활용에 적합한 백색 토종오리로 개량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가금연구소장은 "앞으로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유색 토종오리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백색 토종오리도 농가에 보급하겠다"라며 "새로운 계통이 조성되면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토종오리 산업에도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입 종오리를 이용한 오리고기 생산을 국산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2013년에 유색 토종오리인 '우리맛오리'를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우리맛오리'는 8주령 체중이 2.84kg 정도로 가정에서 요리하기 알맞은 크기다.

또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으며, 보습력이 좋고 육질이 쫄깃한 게 특징이다.

이수복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60년간의 '주민숙원 해결사'

LX, 강원 양구 편치볼 마을
토지이용 문제해결 위해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 전쟁 수복지역의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X는 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이용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지역 내 이른바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 3,429필지가 올해 사업대상이며, 이후 내년에는 해안면 전체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정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실제경계에 맞춰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마을모양이 마치 화체그릇처럼 생겨 편치볼(Punch Bowl)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한국전쟁당시 아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의 민통선 내

접경지다. 원주민 대부분이 한국전쟁 시 이북으로 피난을 간 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무주지(無主地)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관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집단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절차로 LX와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를 실제 땅 모양에 맞도록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인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분쟁이 해소되길 기원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가 국토 디지털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 참여하세요'

전북중기청, 24일까지 신청접수... 최초 협약시
개발비 25% · 과제 종료 후 정산 통해 75%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과제'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민간 또는 시장의 선별 능력을 활용해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 협약시 개발비의 25%를, 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75%를 지원하는 후불형 방식을 도입한 것과 테크브릿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양산자금으로 30억원까지 보증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업성과에 따른 기술료 면제와 최종평가 시 후속과제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사업에 즉시 연계해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80% 한도 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간 3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주관기관·참여기업 모두 중소기업이고 접수마감일 현재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전북중기청은 신청기업의 평가부담 경감 및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격 등 기본요건 검토 및 서면평가(One-shot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2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357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일 9월 18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지원 방문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활동지원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활동지원 배우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고용지원사업 매칭사례 △부정수급 예방 노력 두가지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또는 활동지원사의 개인적 환경이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비스를 매칭한 사례 또는 서비스 이용 중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경험 등을 수기 형식으로 응모하면 된다. 세 부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abks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을 전자우편(np55765@nps.or.kr)으로 전송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새로 개발 그룹웨어
메신저 통해 온라인 소통 나서

예수병원이 새로 개발한 그룹웨어(Aron's Hands)와 메신저(Hur's Hands)를 통해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소통한다.

예수병원의 개인화 포털 지원으로 맞춤형 포털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과 정보활용도 향상을 위한 그룹웨어 Aron's Hands 기능 및 장점들은 △전자 문서시스템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으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시간 단축 △100% PC보안 기반의 시스템 보안 강화 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이 있다. 메신저 Hur's Hands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는 메신저 구축 등을 통한 통합 업무 커뮤니케이션 환경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청각·언어 장애인 위한 '영상수어 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서비스 시행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보이는 ARS 화면 등 통해 이용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일 청각·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국민연금 상담을 위한 '콜센터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9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는 전문 수어상담사와 청각·언어 장애인이 직접 영상을 통해 수어와 문자 상담 등으로 소통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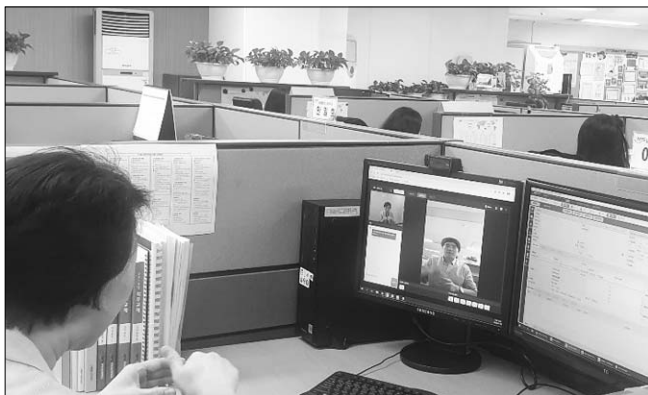
공단은 지난 6월 수어통역 상담사를 채용해 전문 교육과 시범 운영을 거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국민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선 수어통역사와 함께 지사를 내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금보다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관 연계 관광 시너지 효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방문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3일 고군산군도 관문에 위치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사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지역의 관광자원과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해양경관들을 연계해 관광 시너지효과(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새만금과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치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휴양림으로 조성하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는 지난 20일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종합 전기 안전점검을 벌였다.

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355 콜센터의 보이는 ARS 화면', '내결에 국민연금 앱', '국민연금 홈페이지', 청각·언어를 내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금보다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그간 상담 사각지대에 있던 청각·언어장애인에게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3일 고군산군도 관문에 위치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작년 10월 산림청과 체결한 그린인프라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해안 방재림과 미세먼지 차단숲 등 그린뉴딜 사업발굴과 새만금 그린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자연휴양림으로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호성 기자